맞이하기

*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며 가장 힘들었던 일 한 가지와 가장 감사했던 일 한 가지를 나누어봅시다.
* 지난 주 함께 기도한 제목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나누어 봅시다.

말씀요약

* 설교본문과 설교요약을 읽습니다. (bit.ly/31moim)

은혜 나누기

* 말씀을 들으며 가장 와 닿았던 내용이 무엇인지 나누어 봅시다.

* 말씀을 통해 새롭게 알게 된 것, 감사하게 된 것이 있다면 나누어 봅시다.

* 오늘 나눈 말씀이 내가 살아가는 방식에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까? 말씀을 의지해서 도전할 부분은 무엇인가요? 예상되는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 아브라함의 환대가 가진 특징들이 무엇이었는지 생각해 봅시다.
- 피하고 싶은 자리에 감춰두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한 적이 있다면 나누어 봅시다.

함께 기도하기

* 이번 한 주 어떤 삶을 기대하십니까? 구체적인 기도제목 한 가지를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합시다.

* 공동체를 위한 기도제목들을 공유하며 기도합시다.

1. 아브라함의 환대

아브라함이 마므레에 거주할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이를 알아챈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더운 대낮에 장막 문에 앉아 있다가 눈에 들어온 사람 셋을 발견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들을 보자 바로 달려 나가서 몸을 땅에 굽혀 그들을 영접했습니다. 그러고는 자신의 처소에 들러서 잠시 쉬었다가 갈 것을 강권하였습니다.

분명 고대 근동 사회에는 환대가 문화로 자리 잡고 있었지만 여기에 나타난 아브라함의 환대는 과하다 싶을 정도로 적극적인 모습입니다. 그는 더운 날 여행하고 있는 나그네들을 발견하자 지체 없이 달려 나갔고, 겸손한 태도로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나그네들이 아브라함의 초대에 응하자 아브라함은 아내와 종을 시켜서 급히 음식을 준비토록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가진 가장 좋은 것으로 알지 못하는 손님들을 대접하였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자신의 장막 앞을 지나가는 나그네들을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섬겼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대접을 나그네들을 향해 베풀었고, 결과적으로 그는 하나님을 옳게 대접한 셈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손님과 나그네의 모습으로 아브라함 곁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객을 대접하는 일을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과 동일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참고. 마 25:40; 히 13:2).

아브라함의 환대 이야기는 이어지는 19장의 소돔의 심판과 대비됩니다. 아브라함의 집에 머물던 손님 중 두 명이 먼저 소돔 땅으로 향합니다. 그곳에서 소돔 성문에 앉아 있던 롯은 그들을 보고 아브라함과 매우 비슷한 모습과 태도로 그들을 맞이하며 집으로 초대합니다. 그러나 그 밤에 소돔의 온 백성이 롯의 집을 에워싸고 이 나그네들을 끌어낼 것을 요구합니다(창 19:1-5). 그들은 정처 없는 나그네들이 자신의 도시에 온 것을 알고는 그들을 성적으로 착취하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결국에 소돔에는 무서운 심판이 임하고 나그네들, 곧 두 천사들을 환대한 롯의 가족만 그 가운데서 구원을 얻습니다.

2. 피하고 싶은 곳에 감추어 두신 은혜

소돔으로 두 천사가 먼저 떠난 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세상 경영 계획에 대해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나라를 강대하게 하고 천하 만민의 복이 되게 하겠다는 계획을 다시금 확인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가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는 것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창 18:17-19).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 하나님의 도를 따라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세상의 복이 되게 하길 원하셨습니다. 그 핵심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있습니다. 특히나 율법은 나그네들, 곧 아무런 사회적 기반이 없는 이들을 위하여 특별한 사랑을 베풀 것을 명합니다(레 19:33-34).

하나님은 이와 더불어 소돔을 심판하시려는 계획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소돔에서 들려오는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 현장을 확인하시기 위해서 직접 나타나신 것이었습니다(창 18:20-21). 그 과정에 아브라함은 나그네의 모습을 하신 하나님을 보고 환대하였고, 이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그 일에 초대됩니다. 그렇게 그는 소돔의 구원을 중재하는 자리에 이르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은 나그네의 모습으로 아브라함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나그네들을 환대함으로써 감춰진 은혜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피하고 싶은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감춰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나 하나님의 관심은 이 땅의 나그네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자들의 고통과 절규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부르시고 눈을 열어 나그네들의 곤고함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 달려 나가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세상 경영에 동참하게 하십니다.